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정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과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은경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과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김정규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박 은 경

인 준 서

박은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점복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점복 관련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간의 관계와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1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기초로 하여 점복 추구 경험이 있는 2~30대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예비문항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점복에 대한 태도는 5개의 요인-점복 추구 의도, 점복 또는 점복자에 대한 믿음,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점복 추구자에 대한 평가-, 점복에 대한 기대는 2개의 요인-심리/정서적 기대, 인지적 변화 및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문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점복에 대한 태도 31문항, 점복에 대한 기대 15문항이 최종 결정되었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 요인과의 상관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연구자가 제작한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1 표준편차 이상과 이하를 호의적 태도집단 75명, 비호의적 태도집단 82명, 그 이외는 중립적 태도집단 301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점복 추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2% 정도가 직접 점복 추구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다시 점복 추구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68.6%에 달하는 등 점복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점복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이 직/간접 점복 추구 경험이 훨씬 많았으며, 점복 추구 빈도나 비용도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의도가 있는 비율이 98.6%이며, 좀 더 심각한 형태의 신점(神占)과 점

복자와 대면하는 형식인 점집 등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령, 성별, 결혼 여부, 교육수준, 종교, 월평균 가족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점복 추구 경험, 점복에 대한 태도, 점복에 대한 기대 등 점복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 종교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일수록 점복 추구 경험이 많고,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점복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타 종교에 비해 기독교 집단이 점복 추구 경험이 적고, 점복에 대해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점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한 후 점복 관련 변인과 외부통제,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등 심리적 특성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이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외부통제에 가까우며, 특성불안이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종교를 통제한 후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태도집단 간 외부통제와 특성불안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점복,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소재,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목 차

국문 초록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 2. 연구의 목적 ----- 4

II. 이론적 배경

1. 점복(占卜)

- 1) 점복(占卜)의 정의 ----- 5
- 2) 점복(占卜)의 종류 ----- 6
- 3) 점복(占卜)의 역사 ----- 7
- 4) 점복(占卜)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 8
- 5) 점복(占卜)에 관한 선행 연구들 ----- 10

2.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 1) 통제소재 ----- 12
- 2) 통제소재와 점복 ----- 13

3. 특성불안(Trait anxiety)

- 1) 특성불안 ----- 14
- 2) 특성불안과 점복 ----- 15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16
-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점복 ----- 17

III. 연구문제 및 대상

1. 연구문제 -----	18
2. 연구대상 -----	20

IV. 연구1 :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1. 연구절차 -----	21
2. 예비문항 작성 -----	22
3. 예비문항 구성 내용 -----	23
4. 척도의 문항 선정과 하위요인 확정 -----	25
5. 척도의 신뢰도 검증 -----	31

V. 연구2 : 점복(占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

1. 연구절차 -----	33
2. 연구도구	
1) 점복 추구 경험에 관한 질문지 -----	34
2) 통제소재 척도 (Locus of Control Scale) -----	34
3) 특성불안 척도(Trait Anxiety Inventory) -----	36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	36
(Intolerance of Uncertainty)	
5)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	36
6)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	36
3. 집단 구분을 위한 기준 -----	37
4. 연구결과	
1) 점복 추구 실태 -----	39
2)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점복 관련 변인의 관계 -----	44
3) 성별 및 종교에 따른 점복 관련 변인의 차이 -----	46

4)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의 점복 추구 유형 비교 -----	47
5) 점복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특성의 관계 -----	49
6)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	50
VI. 논의 및 제언 -----	52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20
표 2.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	25
표 3.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의 설명된 총분산 -----	27
표 4.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의 패턴행렬 -----	28
표 5. 점복에 대한 기대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	29
표 6. 점복에 대한 기대 문항의 설명된 총분산 -----	30
표 7. 점복에 대한 기대 문항의 패턴행렬 -----	30
표 8.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	31
표 9. 태도 척도의 Pearson 상관계수 -----	31
표 10. 기대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	32
표 11. 기대 척도의 Pearson 상관계수 -----	32
표 12. 태도집단과 기대집단 교차분석 -----	37
표 13. 간접경험과 직접경험 / 간접경험 * 직접경험 교차 -----	38
표 14. 점복 추구 빈도와 평균 소요 비용 -----	39
표 15. 점복 종류와 점복 추구 방법 -----	40
표 16. 점복 추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문제영역 -----	41
표 17. 점복 추구 계기 -----	42
표 18. 점복 추구 재의도 -----	42
표 19.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유형 비교 -----	43
표 20.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점복 관련 변인의 Pearson 상관계수 -----	45
표 21.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점복 관련 변인의 t 검증 결과 -----	46
표 22. 점복 관련 변인에 대한 종교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결과 비교 ---	47
표 23. 성별/종교 통제 후 심리적 특성과 점복 관련 변인의 부분상관계수 -----	48
표 24.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태도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결과 비교 -----	49
표 25. 성별/종교 통제 후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태도집단 간 공분산분석 -----	50

I. 서론

과학적으로 상당히 진보한 현대 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점복(占卜)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원시농경사회에서 인간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앙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연의 변화나 점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에 와서는 과학의 발달을 통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과학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복을 미신으로 간주하고, 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점복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김영재, 2003). 그러나 점복 추구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지고, 접근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점복의 과학성이나 논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생활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김영재, 2003). 점복 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점복이 생활 가까이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해준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의 점복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복 추구에 포함된 심리학적 속성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점복 추구하고 관련된 심리학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1. 연구의 필요성

점복(占卜)이란 단순히 점(占)이라고도 하는데, 서울민속대관(1993)을 살펴 보자면, ‘인간의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미리 알아내어 인간의 생활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점복 추구는 ‘점을 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divination 또는 fortune telling이라고 하며, 어떠한 불길한 조짐이나 신비로운 혹은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거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이다.

점복 추구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김영재, 2003).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토정비결을 보기도 하고, 이어나 결혼 등 앞두고 점복가를 찾아간다. 점복(占卜)의 시장규모가 한해 영화산업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문, 잡지의 매체에서는 특별 운세나 별자리 운세를 게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복자의 수는 대략 2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 사주카페, 타로카드 등 손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인해 젊은층에게는 점복 추구가 하나의 놀이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점복의 성행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Gallup poll(1990)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 4명 중 최소한 1명이 점성술을 믿으며(Vyse, 1997), 미국에는 천문학자에 비해 점성술사가 약 10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에는 가톨릭 신부보다 점성술사가 더 많다고 한다(이상현, 2003).

한국갤럽(1994)의 조사에 따르면 직접 돈을 내고 점을 본 사람은 전체 인구의 38.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미개하다거나 무지하다는 인식 때문에 조사를 통해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점복에 관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9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점복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서도 점이나 사주를 보러간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재a, 2003), 한

1) 시사저널, ‘점’이라는 심리 상담, 2007.02.14일자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의 2006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8.2%가 ‘점을 믿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점복 추구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제로 다룬 심리학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인류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간간히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점복을 매우 일시적이고, 비과학적인 현상으로만 간주해왔을 뿐, 연구 주제로서는 고려하지 못했다. 점복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점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심리학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 설명, 예측하기 위한 학문이다. 따라서 점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인 변인들의 개인차를 밝히고자 한다. 점복 추구에 내재한 심리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김철민, 2002). 나아가 점복 추구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집단 혹은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점복 추구하고 일반적인 정신병리와의 관계가 밝히거나 임상적으로 관련된 특성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채 단발성에 그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를 문화적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점복 추구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점복 추구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근한 형태의 상담기능을 해왔다(장성숙, 2005). 심리학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치료자를 점복자 대하듯 하거나 점복을 구하듯 설명하지 않아도 증상을 맞춰야 하며, 조속한 처방을 내려주기를 바란다(이부영, 1998; 김광일, 1998). 따라서 점복 추구하고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점복을 추구하는 한국들의 심리학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김철민, 2002).

2. 연구의 목적

역사적으로 점복을 추구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점을 믿는가 안 믿는가’라는 단순 질문을 통해 솔직한 대답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점복 추구 여부를 통해 역시 점복에 대한 태도를 타당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목적은 점복에 대한 태도를 좀 더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태도집단 간의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점복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점복 추구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외국의 선행연구를 통해 점복 추구하고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검증해본다. 두 번째로는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유형을 비교하고, 점복에 대한 태도가 통제소재, 특성불안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본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점복 추구의 정의와 개념적으로 관련되는 변인으로, 기존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이 변인을 추가하여 심리적 특성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더불어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3가지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점복(占卜)

1) 점복(占卜)의 정의

인간의 점복 추구는 원초적인 의도 하에 생성된 것으로, 점복을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진실, 즉 신의 뜻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²⁾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을 알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견하며, 예견된 결과에 따라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생성된 것이다(김영재, 2003b). 따라서 점복을 개인의 길흉화복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관점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이다. 또한 점복, 무속신앙, 샤머니즘, 무속, 역술, 주역, 점술 등의 명칭들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의미의 상호관련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다(김준희, 이제영, 2003).

점복뿐만 아니라 금기(taboo), 풍수지리, 예언(prophecy), 초능력, 유사종교(cults) 등을 포함하여 우리는 흔히 미신이라고 말한다(김준희, 이제영, 2003). 미신성(superstition)이란 비합리적 신앙 또는 행위로서, 종교, 문화, 신앙과 관련하여 넓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정상 종교의 신앙규범을 벗어난 주술적 요소가 짙은 맹신의 신앙형태를 가리킨다.³⁾ ‘13일의 금요일’과 같은 통념에서부터 미확인 비행물체(UFO)의 존재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된다.

비슷한 개념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paranormal) 믿음, 마술적(magical) 믿음⁴⁾ 등이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paranormal)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재 과학자들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

2) 두산세계대백과

3) Britannica 백과사전

4) psi belief, spiritualism, extraordinary life forms and precognition

지는 영역 밖의 것을 의미한다(Thalbourne, 1982). 이러한 개념들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정승안(1997)은 점복 추구에 대한 정의를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누었다. 협의적 의미로서의 점복 추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신비로운 존재에 의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광의적 의미는 점복 추구를 단지 개인적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라고 고려했을 때,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건이나 일의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판단행위’이다. 연구자에 따라 점복의 개념에 행위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보로서의 점복과 행위로서의 점복 추구를 구분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복**이라 함은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 미리 얻어진 모든 정보, 즉 미래에 대한 모든 징조를 포괄하며, 그 종류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으며, 별자리 운세와 같이 접근이 용이한 것부터 신을 불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초능력자에 의해 구해지는 신점까지 다양하게 포함된다. ***점복 추구**란 미래에 대한 어떤 징조를 미리 판단하고자 하는, 즉 점복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

2) 점복(占卜)의 종류

점복을 행하는 주체와 대상, 점복에 이용되는 도구, 점을 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고대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점복은 어느 민족에게나 존재하였으며, 동서양의 점복은 도구나 방법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타로점이나 별자리 운세가 크게 유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점복의 종류라고 여겨졌던 손금이 프랑스의 집시들로부터 전해져왔다는 사실⁵⁾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점복(占卜)이라는 한자를 살펴보자면, 占은 거북껍질에 나타난 조짐을 보고 앞날의 좋고 나쁨을 미루어 아는 것이고, 卜은 거북을 불태워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른바 거북점을 말하는 것이다(장장식, 1999).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최초의 점복으로 부여의 소발굽점을 들 수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여겼다고 한다.⁶⁾

서양에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점성술(astrology)은 천체가 갖는 신비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태어난 때의 시기의 별자리에 따라 사람의 성격, 운명 등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Vyse, 1997). 점성술의 종류로는 별점, 호로스코프, 흙점, 신수점, 사주점, 카드점, 숫자점, 닭점, 화살점, 당나귀점, 양과점, 불점, 램프점, 향점, 보석점, 막대기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김선호, 2004). 그 외의 동물의 간 등에 의하여 점치는 내장점이 일찍이 발달하였고, 무심히 책을 폈을 때 먼저 눈에 띄는 문장으로 점을 치는 개전점 등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흔히 시행되는 점복의 종류로는 주역점, 사주점, 성명학, 관상, 수상, 풍수, 신점 등이 있다(정승안, 1997). 주역점이나 사주점은 주역에서 원리를 추출해 인간의 길흉화복을 해석해내는 것으로 주역을 학문적으로 평가하는 활발한 작업과 함께 과학적 호소력을 갖는 듯한 인상을 줘서 최근 들어 더 보편화되는 경향이 있다(김영재, 2003b).

3) 점복(占卜)의 역사

점복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느 문화에나 일찍부터 점복이 있어왔다.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유럽의 바빌로니아에서는 점성술이 발달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점복이

5) MBC TV <운명을 믿으십니까? - 동서양의 점(占)문화>, 2007. 02. 07 방영

6)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

나 미신, 사주팔자, 운명론에 익숙했다. 전쟁의 승패를 미리 점치는 것부터 농사일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것까지 점복의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고대 중국과 로마에서의 점복은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었으며, 이 기술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였다고 한다(이상현, 2003).

조선조에 와서 양반문화가 우세해지면서 무속인을 천민으로 취급하고,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식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민중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무속 신앙을 탄압했다. ‘미신(superstition)’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 자체도 메이지 유신 시대의 개화주의자들이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해온 것이다. 해방 이후에는 서구문명과 기독교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무속행위가 타파대상이 되고 말았다(장성숙, 2005).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점복을 추구하면서도 폄하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의 성격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라는 원초적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이부영, 1998). 왜냐하면 현재 무속의 추세를 보면, 곳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점복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용범, 2003).

4) 점복(占卜)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Tyson(1982)는 점성가(점복가)를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센서스의 자료와 비교하였는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여성이었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은 편이고, 더 높은 수준의 역할 압력을 경험하며, 암시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Barbara et al.(2003)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신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결론지었다. Tobacyk et al.,(1983)와 Dag(1999)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예지력에 대한 믿음이 높고,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네스 호의 괴물이나 설인과 같은 괴상한 생명체((extraordinary life form)에 대한 믿음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신성이 높다는 것에 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 비교적 점복을 포함한 미신성(superstition)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일부 연구는 그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신성에 회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기도 했다(Vyse, 1997). Gallup(1990)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성인의 경우 나이가 많은 집단에 비해 더 미신적이라고 보고 되었다.

McGarry, & Newberry(1981)는 미신성이 높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능, 높은 사회경제적 상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yson(1982)의 연구에 따르면 점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대학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복 추구 비용 지불과 관련한 경제적 수준과 상관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허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Wuthnow(1976)은 점성술(astrology)에 대한 믿음은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이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Emmoms and Sobal(1981)은 점성술에 대한 믿음과 미취업의 상태가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Irwin, 1993 재인용).

점복 추구하고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결혼을 한 사람보다는 이혼한 사람이 점성술에 대한 믿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성술사를 찾아온 고객들은 높은 독신율과 이혼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yson, 1982).

종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면, Gallup(1990)에 따르면 종교가 가지고 있을수록, 특히 기독교일 경우 점복 추구하고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Vyse, 1997), 일부의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종교성의 영향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Tyson, 1982). 종교성과 미신성 사이에는 일종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믿음에 따른 행동이 유사하기도 하며, 또한 이해하기보다 절대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도 유사하다. 게다가 일부 종교는 미신과 구분하기가 어렵다(Vyse, 1997).

5) 점복(占卜)에 관한 선행 연구들

사회학이나 종교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점복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다루어왔다. 정승안(1998)은 점복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고찰하고, 사회학적인 함의를 고찰하였다. 재미, 오락으로서의 점복, 카타르시스와 심리적 해방, 판단의 준거, 삶의 예방적 수단, 공동체 결합의 매개, 사회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서의 점복의 순기능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운명론과 허무주의에의 몰입, 성차별의 이데올로기, 사회적 불안감의 조성,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 역사의식의 부재,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제 등을 점복의 역기능적 폐단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점복문화를 바탕으로 한국식 상담모형의 개발을 모색해왔다. 장성숙(2005)은 점복이 상담과 달리 내부귀인보다는 외부귀인을 하고, 역동에 대한 이해보다는 외적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단발성의 상거래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점복은 가장 친근한 형태의 상담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담자가 참작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영재(2003b) 역시, 점복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해결적 특성과 상담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영재(2003a)는 '왜 점복자를 찾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불안감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중재조건으로 점복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점복 추구 행동을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유연성, 자신감 회복을 가능케 한다고 핵심범주를 개념화 하였다.

소비자 관련 연구에서는 점복 추구 행동을 소비행동으로써 다루었다. 김철

민(2002)은 점복 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관을 탐색하고, 김철민, 이성수(2004)는 점복 소비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비행동에 대한 설명변수를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설명변수들로는 기존 소비 경험과 예측의 정확성, 인생을 통한 성공 경험, 자기 효능감,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참지 못하는 개인의 경향성 등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점복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미신성(superstition),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paranormal) 믿음, 마술적(magical) 믿음과 관련된 몇몇의 연구가 보고 되어있다. 따라서 점복(占卜)에 대한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미신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 마술적 믿음에 대한 선행연구를 폭넓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통제소재

1)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도 개인에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경험에 따르는 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즉 모든 상황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힘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들로 크게 이분할 수 있다(이형초, 최정윤, 1993). 외적 통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운이나 우연, 운명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권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것이며, 내적 통제는 성공이나 실패가 모두 자신의 책임 하에 있으며, 자신의 운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Vyse, 1997). Rotter(1966)는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내외통제 개념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측정 가능한 도구를 만들었다.

신혜경(199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문제가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 유발된 것이거나 외적인 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을 갖는 문화권의 내담자들은 외부 지향적 귀인 성향을 갖는다고 한다. 동서양의 대학생들 간의 통제소재의 차이를 연구한 Parsons & Schneider(1974)는 일본 대학생들은 서양 대학생들에 비해 가장 외부 통제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내외 통제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여겨진다.

2) 통제소재와 점복

최철민(2002)에 따르면, 사건이나 행동이 운명, 행운, 우연,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각하는 외부통제는 점복의 운명관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점복을 즐겨 찾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외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외부귀인을 주로 한다(김영재, 2004). Dag(1999)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paranormal) 믿음과 외부 통제의 상관이 높으며, Claudio Sica et al.(2002) 역시 삶의 사건에 대한 통제감이 적다고 느낄수록 미신성(superstition)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Tobacyk et al.(1988)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내적인 통제감이 클수록 미신성에 대한 믿음과 부적관계를 나타낸다. 내부통제자는 권위자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면 언제나 저항한다. 반면 외부통제자는 더 잘 설득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인다. 외부통제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의존하기 쉽다(권순실, 2002).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외부 통제와 미신성의 정적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밝혀졌다.

반면에 Tyson(1982)는 점성가를 찾는 행동을 더 잘 설명하는 변수는 통제소재가 아니라 스트레스 변수이며, 낮은 스트레스 하에서는 통제소재와 점성가를 찾는 행동이 관련이 없으나 높은 스트레스 하에서는 상관이 커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McGarry & Newberry (1982)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paranormal) 믿음에 관여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는 외부통제, 중간 수준이나 높은 수준으로 관여된 대학생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와 더 강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통제소재에 따라 정보 추구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내부통제자가 외부통제자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여, 모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정보를 문제 해결에 이용한다고 한다(이선주, 1995 ; Rotter, 1966).

3. 특성불안(Trait anxiety)

1) 특성불안

Spielberger는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유기체의 오래 가지 않는 상태로서의 불안(State Anxiety: 상태불안)과 비교적 안정된 성격특성으로서의 불안(Trait Anxiety: 특성불안)을 구별하여 개념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pielberger가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으로 구분하는 배경은 기존의 불안에 대한 연구들이 인간이 경험하는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서의 불안 현상을 효과적으로 연구하지 못한다고 본 데 있다(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에 따르면 상태불안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안의 강도가 변화하는 지각된 염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자율신경계 통의 각성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특성불안은 광범위한 상황들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불안상태로 반응하는 비교적 안정된 개인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특성불안은 개인차를 지닌 동기나 행동성향이다(이선주, 1995 ; 권순실, 2002).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특성불안의 수준에 따라 상태불안의 차이가 있으며,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태불안 수준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Spielberger, 1972).

2) 특성불안과 점복

미신성(Superstition)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는 불안으로 인한 동기화를 포함한다. Malinowski(1972)는 연구를 통해 미신적인 행동이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결론지었다. Tyson(1982)는 점성술을 통해 자신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여, 불확실성이나 불안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arbara et al.(2003)는 미신적인 사람은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은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미신성과 걱정(worry), 미신성과 광장공포증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Tobacyk(1982)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과 특성불안이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Wolfradt(1997)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Paranormal Belief Scale의 소척도 중에 특히 미신성과 예지력에 대한 믿음이 특성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성은 인간의 경험의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갬블러처럼 불확실성을 즐기거나 이러한 불확실성에 압도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약물 중독, 공포증, 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Vyse, 199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며, 일련의 인지, 정서, 행동으로 반응한다(유성진, 권석만, 20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김혜영, 2007). 또한 모호함을 수용할 수 없고, 자신의 결함에 따른 것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행동을 제약한다는 신념을 가진다(설승원, 2007 재인용; Buhr & Dugas, 2002).

많은 연구자들이 범불안장애 및 불안장애의 주요한 특징으로 걱정(worry)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며,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유성진, 권석만(2000)의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 수준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원, 민병배(1998)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 및 우울의 정서 상태를 통제된 후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 수준과 유의미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점복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불확실성은 미신(superstition)의 출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으며, 동기화된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을 함축한다(Vyse, 1997). 김선호(2004)는 점복 추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철민 외(2004)는 점복 추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점복 추구에 대한 다섯 가지 설명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전의 점복 추구의 경험이며, 점복의 예측 정확성, 인생의 성공경험, 자기효능감,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참지 못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들었다. 또한 오수성(1995)은 한국인이 점복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지적하였다.

‘점복’을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 미리 얻어진 모든 정보라고 정의할 때, ‘점복 추구’는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데에서 야기된 결과일 수 있다(설승원, 2007). 걱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결정에 이르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한 높은 요구’(elevated evidence requirements)가 있다(설승원, 2007 재인용; Tallis, Eysenck, & Mathews, 1991).

불확실한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위협가를 과대평가하며, 정상인보다 더 많은 통제욕구를 지각하는 경향 및 지각된 통제력이 낮은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유성진, 권석만, 2000). Helena(1994)는 통제할 수 없는 소음을 제공하는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서 통제감의 환상을 갖는다고 하였다. Dag(1999)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paranormal) 믿음이 통제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었다.

Ⅲ. 연구문제 및 대상

1. 연구문제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했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1)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점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단순 질문은 점복에 대한 태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점복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점복에 대한 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및 기대 척도의 문항을 개발한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해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및 기대 척도 각각의 문항 내용의 요인구조를 검토해보고, 신뢰도를 검증한다.

2)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 및 기대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2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점복 추구 실태를 살펴보되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라 점복 관련 변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점복에 대한 호의적-중립적-비호의적 태도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의 점복 추구 유형을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점복 관련 변인과 심리적 특성 중 통제소재,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같은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심리적 변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과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점복 추구 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2.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 때 점복 관련 변인과의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3.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과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이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외부통제일 것이다.

연구가설2)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이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특성불안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3)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이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낮을 것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45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서울, 충북, 전북, 광주, 경북 지역에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여, 46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58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최종학력, 결혼상태, 성별, 종교, 월평균 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빈도	%				
연령	20대	231	50.4	결혼	기혼	174	38.0
	30대	113	24.7		미혼	284	62.0
	40대	44	9.6		합계	458	100.0
	50대	55	12.0	종교	기독교	134	29.3
	60대 이상	14	3.1		불교	83	18.1
	무응답	1	0.2		가톨릭	59	12.9
	합계	458	100.0		무교	165	36.0
	최종학력	중졸 이하	12		2.6	기타	16
고졸		130	28.4		무응답	1	0.2
전문대졸		56	12.2	합계	458	100.0	
대졸		179	39.1	월수입	100만원 이하	42	9.2
대학원 이상		80	17.5		100~200만원	103	22.5
무응답		1	0.2		200~300만원	108	23.6
합계	458	100.0	300~400만원		64	14.0	
성별	남	141	30.8		400~500만원	37	8.1
	여	317	69.2		500만원 이상	87	19.0
	합계	458	100.0	무응답	17	3.7	
				합계	458	100.0	

IV. 연구 1 :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1. 연구 절차

예비문항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점복 추구 경험이 있는 20~30대의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점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37문항과 점복에 대한 기대에 관한 18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고, 문항을 삭제하여 점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31문항, 점복에 대한 기대에 관한 15문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구했다.

2. 예비문항 작성

선행 연구(김영재, 2003a ; 김철민, 이성수, 2004 ; 정승안, 1997)를 토대로 점복 추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문항 내용의 풍부함을 얻고자 점복 추구 경험이 있는 2~30대의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점복 추구 경험에 대해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점복 추구 경험 위주로 자유롭게 응답하되, 점복 추구 계기, 점복 추구 후 느낌, 점복에 대한 기대 및 결과, 점복 추구의 이유와 향후 점복 추구의 의도 등을 중심으로 기술토록 하였다. 면접 시간은 각 대상자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했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하여 남녀 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접 내용과 온라인을 통한 응답 내용을 문항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시 내용적으로 유사한 문항을 분류, 유목화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점복에 대한 신념, 감정적 평가, 점복 추구 의도, 점복 추구의 결과에 대한 기대 등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각 구성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가지 절차로부터 얻어진 문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고, 범주별로 재조직화 하여 초기 문항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 전문가와 본 연구자와의 상의를 통해 문항의 범주를 확정하고, 문항 간의 의미가 중복되거나 불확실한 문항은 삭제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신뢰도 검증 및 문항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삭제될 문항을 고려하여 추가 문항을 새로 작성하였다. 임상심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최종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3. 예비문항 구성 내용

1) 점복에 대한 태도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을 포함하는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을 포함하는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행동의 전초단계, 혹은 행동의 경향성을 포함하는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태도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신념, 감정, 행동을 망라한 개념이다. 이러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태도는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이학식 외, 2006).

본 척도는 점복 혹은 점복 추구에 대한 태도의 구성 요소로 ‘점복에 대한 신념(Belief)’, ‘점복 추구 의도(Intention)’, ‘점복 추구 평가(Evaluation)’ 등 세 하위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복에 대한 신념(Belief)**’은 점복에 대한 믿음이나 점복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정, 예를 들어 ‘점(占)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잘 알아맞히는 용한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점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예를 들어 ‘비합리적인 사람이 점(占)을 본다.’, ‘어수룩한 사람이 점을 믿는다.’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14문항을 작성하였다.

‘**점복 추구 의도(Intention)**’는 점복 추구에 대한 행동 의도나 행동 경향성에 관한 문항, 예를 들어 ‘점복자(점쟁이)가 알려주는 대로 따를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점복자(점쟁이)의 조언을 구하겠다.’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 시 삭제될 문항을 고려하여 추가 작성, 총 11문항을 작성하였다.

‘**점복 추구 평가(Evaluation)**’는 감정적 측면에서의 점복에 대한 긍정

적 평가문항과 부정적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좋다’, ‘싫다’ 등 평가적 형용사와 의미분화척도를 참고하여 점복 또는 점복 추구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평가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평가를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점(占)보는 것은 재미있다.’, ‘점(占)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검증 시 삭제될 문항을 고려하여 추가 작성하여,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점복에 대한 기대(expectancy)

기대(expectancy)는 특정 행동에 대한 특정 결과에 관계에 대한 인식(김종희, 2001)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태도, 신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기대는 행위의 실제 결과보다 오히려 더 개인의 행동을 잘 예언한다고 알려져 있다. 점복 추구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 결과가 연관된다는 기대는 점복 추구 행동을 더 잘 예언할 것이며, 따라서 점복에 대한 연구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본 척도는 ‘점복 추구 결과에 대한 기대’로, ‘나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 작성 시 가정한 요인은 ‘인지적 문제해결’, ‘정서적 지지’, ‘심리적 해소’이며, 각 6문항씩 총 18문항을 예비문항에 포함시켰다.

4. 척도의 문항 선정과 하위요인 확정

1) 점복에 대한 태도

점복에 대한 태도와 기대에 관한 총 55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내적합치도(Cronbach' α)가 .97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예비문항 작성 시 가정한 요인구조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태도 문항 총점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과 달리 기대 문항 총점은 비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므로 태도 문항과 기대 문항을 따로 구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의 총 37개 예비문항만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합치도(Cronbach' α)가 .95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27(평가2)의 경우 $-.189$ 로 역상관이 나왔으며, 이 문항을 제거할 경우 유의미하게 신뢰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문항27(평가2)을 1차 제거하였다.

문항27(평가2)을 제외한 36문항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되므로 직접 오블리민을 사용하였다.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값은 .956으로 충분히 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이 유의미하므로($p < .000$)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문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표 2.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95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489.296
	자유도	630
	유의확률	0.000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서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요인 부하량이 1 이상인 요인이 총 7요인이었다. 탐색적인 주성분 분석을 통해 문항작성 시 가정한 하위요인에서 벗어나거나 어느 하나의 요인에 뚜렷하게 포함되지 않는 문항, 요인부하량이 작은 문항, 내용이 겹치는 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문항 13(신념13), 문항17(의도3), 문항23(의도9), 문항25(의도11), 문항36(평가11) 등 총 5문항을 제거하였다.

[표 3]와 같이 최종 31문항에 대해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추출되었으며, 1요인의 설명력이 39.0%를 차지하고 있었고, 2요인은 9.2%, 3요인은 5.8%, 4요인은 4.9%, 5요인은 3.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5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62.3%였다.

1요인은 ‘점복 추구 의도’ 요인(8문항), 2요인은 ‘부정적 평가’(5문항), 3요인은 점복에 대한 믿음과 점복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인정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점복 또는 점복자에 대한 믿음’ 요인(9문항)으로 명명할 수 있다. 4요인은 점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점복 추구자에 대한 평가’(4문항), 마지막으로 5요인은 ‘긍정적 평가’(5문항) 요인으로 확정되었다[표 4].

표 3.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의 설명된 총분산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전체
1	12.112	39.071	39.071	12.112	39.071	39.071	9.147
2	2.850	9.194	48.265	2.850	9.194	48.265	5.493
3	1.785	5.759	54.024	1.785	5.759	54.024	7.192
4	1.530	4.936	58.960	1.530	4.936	58.960	4.802
5	1.040	3.353	62.314	1.040	3.353	62.314	6.330
6	0.850	2.743	65.057				
7	0.789	2.545	67.602				
8	0.772	2.491	70.093				
9	0.694	2.239	72.332				
10	0.669	2.159	74.492				
11	0.602	1.941	76.433				
12	0.576	1.857	78.290				
13	0.557	1.797	80.086				
14	0.538	1.736	81.822				
15	0.483	1.559	83.381				
16	0.459	1.479	84.861				
17	0.440	1.421	86.281				
18	0.431	1.391	87.672				
19	0.400	1.292	88.964				
20	0.389	1.253	90.217				
21	0.375	1.210	91.428				
22	0.340	1.097	92.525				
23	0.333	1.073	93.598				
24	0.323	1.040	94.638				
25	0.287	0.925	95.564				
26	0.273	0.880	96.444				
27	0.256	0.826	97.269				
28	0.248	0.799	98.068				
29	0.210	0.679	98.747				
30	0.202	0.651	99.398				
31	0.187	0.602	1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4.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의 패턴행렬

	성분				
	1	2	3	4	5
20. 유명한 점복자(점쟁이) 또는 점집을 수소문하기도 한다.	0.898				
19.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점복자의 조언을 구하겠다.	0.849				
18. 점복자(점쟁이)가 권한다면 부적을 사겠다.	0.817				
21. 혼사 등 중요한 일이 있다면 비용이 다소 부담되더라도 점을 보러가겠다.	0.813				
24. 아는 점집 또는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0.756				
22. 점복자(점쟁이)의 실력이 의심된다면 다른 점복자(점쟁이)에게 가보겠다.	0.729				
16. 점복자(점쟁이)가 일러주는 대로 따를 것이다.	0.652				
15.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점을 볼 의사가 있다.	0.588				
28. 점(占)보는 것은 해가 된다.		0.779			
35. 점(占)보는 것은 창피하다.		0.742			
37. 점(占)보는 것은 죄책감이 든다.		0.737			
31. 점(占)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689			
33. 점(占)보는 것은 어리석다.		0.678			
4. 점(占)이 맞는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0.689		
7. 운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0.638		
2. 점복자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말장난 내지는 속임수다.			0.621		
9. 사주와 같은 점(占)은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있다.			0.620		
3.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점복자는 알아맞힐 수 있다.			0.599		
5. 점(占)을 통해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알아낼 수 있다.			0.585		
11. 잘 알아맞히는 용한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0.557		
8. 점(占)은 죄다 상술이다.			0.460		
1. 점(占)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0.444		
12. 점(占)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본다.				0.834	
14.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점(占)을 본다.				0.805	
10. 어수룩한 사람이 점(占)을 믿는다.				0.712	
6. 비합리적인 사람이 점(占)을 본다.				0.597	
29. 점(占)의 신비로움이 매력적이다.					-0.700
26. 점(占)보는 것은 재미있다.					-0.664
32. 점(占)보는 것은 건전하다.					-0.603
30. 점(占)보는 것은 좋다.					-0.493
34. 점(占)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0.448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a. 11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2) 점복에 대한 기대(expectancy) 문항

점복에 대한 기대 문항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총 18개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을 실시하였다.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값은 .959로 충분히 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미하므로($p < .000$)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하다[표 5].

표 5. 점복에 대한 기대 문항의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9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6205.785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0

탐색적인 1차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항작성 시 가정했던 ‘인지적 변화 및 문제해결’, ‘정서적 지지’, ‘심리적 해소’ 등 3요인과 달리 ‘정서적 지지’ 요인과 ‘심리적 해소’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 2차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심리적 해소’ 요인의 고유치는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 선정을 위한 2차에 걸친 주성분 분석을 통해 두 요인에 걸쳐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보이거나 문항 내용이 겹치는 문항 6, 7, 11 등 총 3문항을 제거하였다.

[표 6]과 같이 최종 15문항에 대해서 2요인 추출되었으며, 1요인은 ‘심리/정서적 기대’에 대한 내용이며, 설명력이 64.2%를 차지하고 있었고, 2요인은 ‘인지적 변화 및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이며 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2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72.2%였다.

표 6. 점복에 대한 기대 문항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분산	%누적	전체	%분산	%누적	전체
1	9.634	64.226	64.226	9.634	64.226	64.226	9.085
2	1.199	7.991	72.217	1.199	7.991	72.217	7.492
3	0.804	5.360	77.578				
4	0.516	3.441	81.018				
5	0.444	2.962	83.980				
6	0.370	2.467	86.446				
7	0.313	2.084	88.530				
8	0.301	2.006	90.537				
9	0.269	1.791	92.327				
10	0.244	1.625	93.952				
11	0.223	1.486	95.439				
12	0.220	1.464	96.902				
13	0.180	1.198	98.100				
14	0.158	1.057	99.157				
15	0.127	0.843	1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7.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의 패턴행렬(a)

	성분	
	1	2
문항16.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0.953	
문항17.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	0.943	
문항14. 속이 후련해질 것이다.	0.928	
문항15. 자신감이 회복될 것이다.	0.908	
문항13.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0.891	
문항18. 희망이 생길 것이다.	0.886	
문항12.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0.688	
문항10.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이다.	0.641	
문항9. 인정받고, 대우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0.578	
문항8. 나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이다.	0.512	
문항2.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0.902
문항1. 나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0.896
문항3. 미리 조심하고 삼갈 것을 알려줄 것이다.		0.837
문항4. 객관적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0.796
문항5.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0.526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a. 5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5. 척도의 신뢰도 검증

1)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최종 31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44이며, 각 요인별로 .813~.928로 나타났다[표 8]. 각 요인 간의 상관 및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전체와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전체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항목 수	31	8	5	9	4	5
Cronbach의 알파	0.944	0.928	0.877	0.867	0.813	0.816

각 요인과 전체 척도의 상관은 .677~.868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369~.729로 나타났으므로 ‘점복’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요인 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문항 변별력이 다소 낮으며, 독립적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표 9. 태도 척도의 Pearson 상관계수

	점복태도 (전체)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점복태도 척도	1.000					
요인1	0.843***	1.000				
요인2	0.677***	0.369***	1.000			
요인3	0.864***	0.649***	0.442***	1.000		
요인4	0.679***	0.389***	0.515***	0.559***	1.000	
요인5	0.868***	0.725***	0.522***	0.699***	0.456***	1.000
평균 (표준편차)	71.64 (19.09)	14.47 (5.60)	14.25 (3.50)	21.84 (4.75)	10.04 (2.68)	11.11 (3.50)

*** $p < .001$

2)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점복 추구에 대한 기대의 15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60이며, 각 요인 별로 1요인은 .955, 2요인은 .903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기대 척도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전체	요인1	요인2
항목 수	15	10	5
Cronbach의 알파	0.960	0.955	0.903

전체 척도와 각 요인의 상관은 각각 .890, .974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두 하위요인은 .765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표 11. 기대 척도의 Pearson 상관계수

	점복기대척도	요인1	요인2
점복기대	1.000		
요인1	0.974***	1.000	
요인2	0.890***	0.765***	1.000
평균	31.27	20.40	10.93
(표준편차)	(9.96)	(7.08)	(3.47)

*** $p < .001$

V. 연구 2 : 점복(占卜)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

1. 연구절차

점복 추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 간의 점복 추구 유형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들과 점복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종교에 따른 점복 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종교를 통제된 후 점복 관련 변인들과 통제소재,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등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구하였다.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점복 추구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점복 추구 직/간접적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그 중 점복추구에 대한 직접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점복을 추구하는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경험해본 점복의 종류, 방법, 점복을 통해 도움 받고자 했던 문제 영역, 점복 추구 비용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선호하는 점복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선행 연구의 고찰 및 반 구조화된 면접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복 추구 계기에 관한 문항을 작성하여 포함시켰다. 복수 응답이 가능토록 하였다. 점복의 재 추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첨가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종교, 월평균 가족수입 등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켰다.

2) 통제소재 척도 (Locus of Control Scale)

어떤 사건의 통제소재가 내부에 있는지 또는 외부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Rotter(1966)가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Rotter가 만든 원 척도를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 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검사이다. 전체 21개의 문항 중 본 문항 15개, 허구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또는 외부통제소재를 나타내는 두 개의 짝 지워진 진술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선택형 검사이다. 허구문항인 1, 5, 9, 12, 15, 19번 문항은 제외되며, 2, 3, 4, 13, 16, 17, 20, 21번 문항은 1)번 응답을 하는 경우, 6, 7, 8, 10, 11, 14, 18문항은 2)번 응답을 하는 경우에 외부 통제지향성으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분석결과 4번 문항은 -0.269 으로 역상관이 나왔고, 이 문항을 제거했을 때 유의미하게 신뢰도 값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 문항을 제외하였다. 총 14문항에 대해 내부 통제를 0

점, 외부 통제를 1점으로 처리하여, 최고 14점, 최하 0점을 가질 수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부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4번 문항을 제외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661로 나타났다.

3) 특성불안 척도(Trait Anxiety Inventory)

이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 그리고 Jacobs(1983)가 개발한 STAI-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6)가 번안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본래 정상 성인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임상집단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을 위협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지각하거나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불안 반응들의 강도를 높여서 반응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로 정의되는 특성불안 문항 20개와 특정한 순간에 일정한 수준의 강도로 경험되는 정서 상태로 정의되는 상태불안 문항 20개, 총 40문항으로 구성된다.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6)에 따르면 특성불안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상태불안 문항은 .92이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흔히 느끼고 있는 경향을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에 따라 1='전혀 아니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반응토록 하였다. 문항 1, 3, 6, 7, 10, 13, 16, 19번은 역채점된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특성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이 임상적인 불안과 관련이 있다(Eysenck, 1992)는데 함의를 두고 있으며, 연구목적에 맞게 특성불안 문항 20문항만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특성불안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72였다.

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불확실함을 못 견디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reeston 등(1994b)에 의해 개발된 4점 척도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및 불확실함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통제시도 등을 측정하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진술에 대해 자신에게 적합한 정도를 1='전혀 아니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못 견디는 성향이 많음을 의미한다. Freeston 등(1994b)에서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1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최혜경(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17이었다.

5)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본 연구자가 앞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점복 추구 의도(8문항), 점복 또는 점복자에 대한 믿음(9문항), 부정적 평가(5문항), 긍정적 평가(5문항), 점복 추구자에 대한 평가(4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점복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2, 4, 6, 8, 10, 12, 13, 23, 26, 28, 30, 31은 역채점 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44이었다.

6)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본 연구자가 앞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심리/정서적 기대(10문항), 인지적 변화 및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점복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960이었다.

3. 집단 구분을 위한 기준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과 비호의적 태도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태도 총점의 1 표준편차 이상의 집단과 1 표준편차 이하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1 표준편차 이상의 집단은 호의적 태도집단, 1 표준편차이하의 집단을 비호의적 태도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기타 집단을 중립적 태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358명의 점복에 대한 태도 총점의 평균은 71.64이며, 표준편차는 16.085였으며,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응답자 중 75명이 호의적 태도집단으로, 82명이 비호의적 태도집단, 301명이 중립적 태도집단으로 선정되었다.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점수의 평균은 31.27이며, 표준편차는 9.965였으나 정규분포의 형태가 아니라 최빈치가 15점인 양봉적인 분포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점복에 대한 기대수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점수의 중앙값 33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 기대집단과 저 기대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각각 229명이 선정되었다.

태도집단과 기대집단을 교차 분석한 결과[표 12],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95.1%가 저 기대집단에 속하며, 호의적 태도집단의 94.7%가 고 기대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을 굳이 따로 구분하지 않고, 태도 척도 기준을 통해서만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12. 태도집단과 기대집단 교차분석

	저 기대집단	고 기대집단	전 체
비호의적 태도	78(95.1%)	4(4.9%)	82(100%)
중립적 태도	147(48.8%)	154(51.2%)	301(100%)
호의적 태도	4(5.3%)	71(94.7%)	75(100%)
합계	229(50%)	229(50%)	458(100%)

4. 연구결과

1) 점복 추구 실태

점복 추구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61.8%가 부모나 친지 등 주변인을 통해서 간접 점복 추구를 한 적이 있으며, 전체의 66.2%는 직접 점복 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3-1].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간접 추구 경험과 직접 추구 경험이 ‘모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9.7%,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이었다. 직접 추구 경험은 없으나 간접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8%, 간접경험은 없으나 직접경험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1%로 나타났다[표 13-2].

표 13-1. 간접경험과 직접경험

		빈도(명)	%
간접 경험	있음	283	61.8
	없음	170	37.1
	무응답	5	1.1
	합계	458	100.0
직접 경험	있음	303	66.2
	없음	155	33.8
	합계	458	100.0

표 13-2. 간접경험 * 직접경험 교차

		직접경험		
		있음	없음	전체
간 접 경 험	있음	빈도(명) 225	58	283
		% 49.7	12.8	62.5
경 험	없음	빈도(명) 73	97	170
		% 16.1	21.4	37.5
전체		빈도(명) 298	155	453
		% 65.8	34.2	100.0

점복을 직접 추구한 경험이 있는 303명을 대상으로 점복 추구 빈도와 평균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1년에 한 번’ 본다고 응답한 사람이 3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6개월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9.9%, 0.7%였다. 평균 비용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9.8%가 평균 ‘1~3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응답하였으며, ‘4~1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8.9%를 차지하였다. ‘만원 미만’과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9.4%, ‘11.6%로 나타났다.

표 14. 점복 추구 빈도와 평균 소요 비용

		빈도(명)	%
추구 빈도	한 번	62	20.5
	5년에 한 번 이하	54	17.8
	2~4년에 한 번	53	17.5
	1년에 한 번	98	32.3
	2~6개월에 한 번	30	9.9
	한 달에 한 번 이상	2	0.7
	무응답	4	1.3
	합계	303	100.0
	추구 비용	없음	35
만원 미만		89	29.4
1~3만원		151	49.8
4~10만원		27	8.9
무응답		1	0.3
합계		303	100.0

경험한 점복의 종류와 추구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직접 경험한 응답자(n=303) 중 71.4%가 사주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타로 46.8%, 토정비결 23.9%, 궁합은 19.6%, 손금 17.3%, 신점 16.9%였다. 추구 방법으로는 점집이나 철학관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가 44.3%로 나타났다으며, 사주카페 37.3%, 인터넷은 29.3%,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의 노점 형은 26.3%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점복의 종류와 추구 방법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7.5%가 사주 형태의 점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로, 신점, 토정비결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38.3%가 점집이나 철학관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를 선호하며, 사주카페 16.8%, 인터넷 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점복종류와 점복추구방법

		빈도(명)	%	총%			빈도(명)	%	총%
경험 점복 종류 (중복)	사주	215	32.8	71.4	경험 점복 추구 방법 (중복)	대중 매체	35	6.8	11.7
	타로	141	21.5	46.8		인터넷	88	17.2	29.3
	손금	52	7.9	17.3		전화	5	1.0	1.7
	관상	20	3.1	6.6		사주 카페	112	21.8	37.3
	신점	51	7.8	16.9		점집 방문	133	25.9	44.3
	궁합	59	9.0	19.6		노점형	79	15.4	26.3
	별점	33	5.0	11.0		지인	48	9.4	16.0
	토정 비결	72	11.0	23.9		종교인			
	기타	12	1.8	4.0		기타	13	2.5	4.3
	합계	655	100.0	217.6		합계	513	100.0	171.0
	선호 점복 종류	사주	144			47.5	선호 점복 추구 방법	대중 매체	12
타로		45		14.9	인터넷	38			12.5
손금		5		1.7	전화	2			0.7
관상		9		3.0	사주 카페	51			16.8
신점		31		10.2	점집 방문	116			38.3
궁합		3		1.0	노점형	19			6.3
별점		7		2.3	지인	30			9.9
토정 비결		23		7.6	종교인				
기타		19		6.3	기타	19			6.3
무응답		17		5.6	무응답	16			5.3
합계		303		100.0	합계	303			100.0

직접 경험한 응답자들 중 51.4%가 이성 및 결혼과 관련된 문제영역에서 도움을 얻고자 했으며, 43.6%가 재물(금전) 및 사업, 40.9%가 직업(취업) 및 이직, 21.3%는 시험 및 진학 문제, 15.2%는 자녀/부부문제 등 가족에 관련된 문제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문제 영역의 경우 11.5%,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영역의 경우에는 8.8%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점복 추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문제영역

문제영역	빈도(명)	%	총%
재물(금전) 및 사업	129	20.6	43.6
직업(취업) 및 이직	121	19.3	40.9
건강문제	34	5.4	11.5
정신건강(우울, 불안)	26	4.1	8.8
시험 및 진학문제	63	10.0	21.3
이성 및 결혼문제	152	24.2	51.4
가족(자녀/부부)문제	45	7.2	15.2
이사 등 택일	19	3.0	6.4
작명	13	2.1	4.4
기타문제	25	4.0	8.4
합계	627	100.0	211.8

점복 추구 계기에 대한 결과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직접 경험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오락적 계기’로 점복 추구했다고 응답하였다(재미나 오락으로 50.7%, 데이트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21.3%, 궁금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47.3%). ‘인생 전환기의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라고 응답한 비율은 37.3%, ‘선택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36.3%,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35.0%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적 계기’에서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답답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서’라는 응답한 비율은 각각 27.0%, 22.0%, 28.0%였다.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등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20.0%, 15.3%로 나타났다. 또한 ‘잘 맞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7. 점복 추구 계기

	빈도(명)	%	총%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51	3.9	17.0
선택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109	8.3	36.3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105	8.0	35.0
논리나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역경을 겪었을 때	28	2.1	9.3
인생 전환기에서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112	8.5	37.3
실패를 피하고 싶어서	23	1.7	7.7
연초가 되면 의례적으로	66	5.0	22.0
답답하기 때문에	81	6.1	27.0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66	5.0	22.0
우울해서	19	1.4	6.3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서	60	4.5	20.0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등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서	46	3.5	15.3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7	0.5	2.3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7	0.5	2.3
가족의 대표자로서	9	0.7	3.0
재미나 오락으로	152	11.5	50.7
데이트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64	4.9	21.3
궁금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142	10.8	47.3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서	84	6.4	28.0
잘 맞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88	6.7	29.3
합계	1319	100.0	439.7

직접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8.6%가 다시 점복을 추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8.7%만이 다시 추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8].

표 18. 점복 추구 재의도

재의도	빈도(명)	%
의향 없음	87	28.7
의향 있음	208	68.6
무응답	8	2.6
합계	303	100.0

2)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유형 비교

우선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라 구분한 호의적 태도집단, 중립적 태도집단, 비호의적 태도집단 간의 점복 추구 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표 19]. 간접 경험, 직접경험, 빈도와 비용, 재의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450)=34.276, p<.001; F(2,455)=46.865, p<.001; F(2,296)=33.270, p<.001; F(2,299)=17.447, p<.001; F(2,292)=52.584, p<.001). 사후검증 결과, 비호의적 태도집단과 중립적 태도집단, 호의적 태도집단이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호의적인 집단의 경우 간접, 직접경험이 대부분 있고, 추구 빈도가 높고, 비용을 더 많이 들이며, 재 추구할 의사가 강한 반면 비호의적인 집단의 경우, 간접, 직접경험의 비율이 적고, 추구 빈도가 낮으며, 비용을 더 적게 들이고, 재 추구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 종류에 있어서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경우 타로를 응답한 빈도가 높은 반면(비호의 26.3%; 호의 11.4%), 호의적 태도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점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호의 5.3%; 호의22.9%). 선호 방법에 있어서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경우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비호의 35.0%; 호의 10.1%), 호의적 태도집단의 경우 점집이나 철학관 등 직접 방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비호의 15.0%; 호의 60.9%).

표 19.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유형 비교

		비호의적 빈도(%)	중립적 빈도(%)	호의적 빈도(%)	F	사후 검증
간접 경험	없음	55(67.1)	110(36.9)	5(6.8)	34.276***	1<2<3
	있음	27(32.9)	188(63.1)	68(93.2)		
	전체	82(100)	298(100)	73(100)		
직접 경험	없음	58(70.7)	93(30.9)	4(5.3)	46.865***	1<2<3
	있음	24(29.3)	208(69.1)	71(94.7)		
	전체	82(100)	301(100)	75(100)		

	한 번	14(60.9)	46(22.4)	2(2.8)	
	5년에 한 번 이하	4(17.4)	43(21.0)	7(9.9)	1<2<3
	2~4년에 한 번	3(13.0)	41(20.0)	9(12.7)	
빈도	1년에 한 번	2(8.7)	61(29.8)	35(49.3)	33.270***
	2~6개월에 한 번	0(0)	12(5.9)	18(25.4)	
	한 달에 한 번 이상	0(0)	2(1.0)	0(0)	
	전체	23(100)	205(100)	71(100)	
	없음	10(41.7)	25(12.1)	0(0)	
	만원 미만	6(25.0)	70(33.8)	13(18.3)	1<2<3
비용	1~3만원	7(29.2)	96(46.4)	48(67.6)	17.447***
	4~10만원	1(4.2)	16(7.7)	10(14.1)	
	전체	24(100)	207(100)	71(100)	
재 의도	없음	23(95.8)	63(31.5)	1(1.4)	52.584*** 1<2<3
	있음	1(4.2)	137(68.5)	70(98.6)	
	전체	24(100)	200(100)	71(100)	
선호 종류	사주	4(21.1)	99(50.3)	41(58.6)	
	타로	5(26.3)	32(16.2)	8(11.4)	
	손금	0(0)	4(2.0)	1(1.4)	
	관상	2(10.5)	7(3.6)	0(0)	
	신점	1(5.3)	14(7.1)	16(22.9)	
	궁합	0(0)	3(1.5)	0(0)	
	별점	1(5.3)	5(2.5)	1(1.4)	
	토정비결	1(5.3)	20(10.2)	2(2.9)	
	기타	5(26.3)	13(6.6)	1(1.4)	
	전체	19(100)	197(100)	70(100)	
	선호 방법	대중매체	1(5.0)	10(5.1)	1(1.4)
인터넷		7(35.0)	24(12.1)	7(10.1)	
전화		0(0)	2(1.0)	0(0)	
사주카페		1(5.0)	41(20.7)	9(13.0)	
점집방문		3(15.0)	71(35.9)	42(60.9)	
노점형		1(5.0)	16(8.1)	2(2.9)	
지인 또는 종교인		3(15.0)	19(9.6)	8(11.6)	
기타		4(20.0)	15(7.6)	0(0)	
전체		20(100)	198(100)	69(100)	

* p< .05, ** p< .01, *** p< .001

3)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점복 관련 변인의 관계

연령,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종교, 평균 수입 등 연구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징과 점복 추구 직접경험,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변인은 직접경험($r=.253, p<.001$), 점복에 대한 태도($r=.236, p<.001$), 점복에 대한 기대($r=.130, p<.001$)에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종교’ 변인은 직접경험($r=.150, p<.01$), 점복에 대한 태도($r=.282, p<.001$), 점복에 대한 기대($r=.252, p<.001$)에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연령, 교육수준, 가정 월평균 수입 등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점복 관련 변인의 Pearson 상관계수

	연령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종교	평균 수입	점복 경험	점복 태도	점복 기대
연령	1								
성별	.033	1							
결혼	-.706***	.072	1						
교육	-.183***	.023	.151	1					
종교	.079	.009	-.053	-.124**	1				
수입	.194***	.042	-.213***	.189***	-.091	1			
경험	-.051	.253***	.096*	.054	.150**	-.007	1		
태도	-.069	.236***	.098*	.020	.282***	-.003	.487***	1	
기대	-.064	.130**	.072	.014	.252***	.000	.399***	.782***	1

* $p < .05$, ** $p < .01$, *** $p < .001$

4) 성별, 종교 집단에 따른 점복 관련 변인의 차이

상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점복 추구 경험, 점복에 대한 태도, 점복에 대한 기대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점복 추구의 직접경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299, p<.001$). 또한 점복에 대한 태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의미하게 호의적이며($t=-5.020, p<.001$), 점복 추구에 대한 기대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77, p<.01$).

표 21.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점복 관련 변인의 t 검증 결과

	남	여	t	df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평균(표준편차) n=141	평균(표준편차) n=317				
직접경험	.48(.501)	.74(.439)	-5.299	239.211	0.000	- .25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점복태도	.6607(15.920)	.7421(15.525)	-5.020	429	0.000	-8.144
점복기대	29.35(9.980)	32.15(9.850)	-2.777	449	0.006	-2.791

다음으로는 종교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직접경험,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 변인들의 점수를 비교하고자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점복 추구 직접경험은 기독교 집단에 비해 기타 종교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4,452)=4.379, p<.01$), 점복에 대한 태도의 경우 기독교 집단에 비해 불교, 가톨릭, 무교 집단이 유의하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F(4,425)=21.123, p<.001$). 또한 점복에 대한 기대의 경우

기독교 집단에 비해 가톨릭 집단과 무교 집단이 유의하게 높으며, 기독교 집단과 기타 종교 집단에 비해 불교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F(4,445)=19.219, $p < .001$).

표 22. 점복 관련 변인에 대한 종교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결과 비교

		N	M	SD	df	F	사후검증
직접 경험	기독교	134	.54	.500	4	4.379**	1<5
	불교	83	.72	.450	452		
	가톨릭	59	.68	.471			
	무교	165	.70	.461			
	기타	16	.94	.250			
점복 태도	기독교	128	61.98	15.170	4	21.123***	1<2, 3, 4
	불교	74	78.68	14.095	425		
	가톨릭	57	74.00	13.873			
	무교	157	75.52	14.922			
	기타	14	71.29	16.074			
점복 기대	기독교	132	25.70	9.987	4	19.219***	1<3, 4<2
	불교	83	35.08	8.078	445		
	가톨릭	57	32.46	10.038			
	무교	162	33.81	8.682			
	기타	16	28.63	10.582			

* $p < .05$, ** $p < .01$, *** $p < .001$

5) 점복 관련 변인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한 후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 직접경험(점복 행동)과 심리적 특성인 통제소재,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분석(parti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직접경험(점복행동)은 외부통제($r=.139, p<.01$), 특성불안($r=.145, p<.01$)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직접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통제에 더 가깝고, 특성불안이 더 높다.

둘째, 점복에 대한 태도는 외부통제($r=.208, p<.001$), 특성불안($r=.245,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125, p<.05$)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일수록 외부통제에 더 가깝고, 특성불안이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셋째, 점복에 대한 기대 역시, 외부통제($r=.190, p<.001$), 특성불안($r=.246,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231, p<.001$)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점복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외부통제에 더 가깝고, 특성불안이 더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

표 23. 성별/종교 통제 후 심리적 특성과 점복 관련 변인의 부분상관계수(n=424)

	외부통제	특성불안	불확실성 인내력부족	직접경험	점복태도	점복기대
외부통제	1					
특성불안	0.276***	1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	0.194***	0.474***	1			
직접경험	0.139**	0.145**	0.029	1		
점복태도	0.208***	0.245***	0.125*	0.433***	1	
점복기대	0.190***	0.246***	0.231***	0.349***	0.759***	1

* $p < .05$, ** $p < .01$, *** $p < .001$

6)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점복에 대한 태도 집단 간의 통제소재,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포함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표 24].

우선 점복에 대한 태도 집단 간의 통제소재,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455)=8.827$, $p<.001$; $F(2,454)=12.625$, $p<.001$; $F(2,455)=4.207$, $p<.05$). 사후검증 결과, 통제소재에서는 호의적 태도 집단이 중립적, 비호의적 태도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성불안에서는 비호의적 태도 집단이 중립적, 호의적 태도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서는 호의적 태도 집단과 비호의적 태도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호의적 태도 집단의 경우 외부통제일 가능성이 높고, 특성불안이 높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반면, 비호의적 태도 집단의 경우 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외부통제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고, 특성불안이 낮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유의하게 높아, 두 집단의 심리적 특성들이 상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4.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태도집단 간 일원변량분석 결과 비교

		N	M	SD	F	사후검증
통제소재	비호의적	82	4.59	2.50	8.827***	1,2<3
	중립적	301	5.17	2.63		
	호의적	75	6.33	2.98		
특성불안	비호의적	82	40.66	8.84	12.625***	1<2,3
	중립적	300	44.84	8.71		
	호의적	75	47.59	9.16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	비호의적	82	59.60	11.09	4.207*	1<3
	중립적	301	61.64	11.69		
	호의적	75	64.96	12.45		

* $p < .05$, ** $p < .01$, *** $p < .001$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한 후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 간의 외부통제,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포함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표 25].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외부통제와 특성불안의 경우 태도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452)=6.362 p<.01 ; F(2, 451)=6.920 p<.001).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경우,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한 후에는 태도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5. 성별/종교 통제 후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태도집단 간 공분산분석

변인	변량원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외부통제	집단간	90.232	2	45.116	6.362**
	성별	.001	1	.001	.000
	종교	35.441	1	35.441	4.998*
	오차	3205.298	452	7.091	
특성불안	집단간	1055.486	2	527.743	6.920***
	성별	611.180	1	611.180	8.014**
	종교	245.531	1	245.531	3.219
	오차	34397.091	451	76.268	
불확실성 인내력 부족	집단간	709.585	2	35	2.587
	성별	170.170	1	170.170	1.241
	종교	258.849	1	258.849	1.888
	오차	61986.068	452	137.137	

* p< .05, ** p< .01, *** p< .001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점복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의 점복 추구 실태를 알아보고,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른 점복 추구 유형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점복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분야에서의 점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그동안 점복에 대한 태도를 신뢰롭게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반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점복에 관한 태도 및 기대문항을 개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문항을 확정하고, 점복에 대한 태도에 관한 5개의 하위요인-점복 추구 의도, 점복 또는 점복자에 대한 믿음,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점복 추구자에 대한 평가-과 점복에 대한 기대에 관한 2개의 하위요인-심리 정서적 기대, 인지적 변화 및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 등 하위요인을 결정하였다.

최종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점복에 대한 태도의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는 .813~.928였으며,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는 .944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점복에 대한 기대의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는 .903~.960으로 양호하였고,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는 .96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전체 척도와 각 요인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일부 하위요인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문항이 점복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문항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점복에 대한 태도 문항과 기대 문항 역시, 구분되기가 어려운 개념으로 보인다.

연구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점복 추구 실태를 살펴보면, 점복 추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점복 추구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복을 추구한 사람들은 61.8%, 자신이 직접 점복 추구한 사람들은 66.2%로 나타났다. 이 중 비용을 지불한 사람 88.4%(전체 응답자의 5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직접 돈을 내고 점을 본 사람이 전체 인구의 38.3%라는 한국갤럽(1994)의 결과보다 높은 결과이다. 또한 '1년에 한 번 이상' 점복을 추구하는 비율은 42.9%, 다시 점복 추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비율도 68.6%에 달하였다. 소비자 행동이론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상품의 재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학식, 2006). 그러므로 점복추구의 높은 재의도는 점복에 대한 만족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점복자와 직접 대면하는 점복 방법(직접 방문, 38.3%; 사주카페, 16.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점복 추구를 하는 것은 점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관계내적인 인간(장성숙, 2005)이 점복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상담과의 유사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점복 추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문제를 살펴보면, 재물(금전) 및 사업(43.6%), 직업(취업) 및 이직(40.9%), 시험 및 진학문제(21.3%) 등 사업, 직업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점성술(astrology)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다는 외국의 연구결과(Irwin, 1993; Wuthnow, 1976)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점복추구는 개인의 고용상태 등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취업난 등 사회 제반적인 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성 및 결혼 문제영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51.4%), 고용이나 직업과 관련된 문제영역과 더불어 점복추구자의 욕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점복추구자는 커플상담이나 진로/직업상담에 대해 요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는 잠재적 내담자로서 점복추구자를 상담 장면으로 끌어오기 위해 이들의 욕구를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 간 점복 추구 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점복 추구의 경험, 빈도나 지출비용 등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점복 종류나 방법 등 질적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의적 태도집단이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직/간접경험, 빈도, 지출 비용, 재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95.8%가 재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호의적 태도집단의 98.6%는 재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이러한 재의도의 뚜렷한 차이는 점복에 대한 태도로부터 장래의 점복행동이나 장기적인 점복추구까지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은 중립적,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신점(神占)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집이나 철학관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에 비해 비호의적 태도집단의 경우 사주나 타로, 인터넷을 통한 점복 추구를 선호하였다. 신점(神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의 예언을 전하는 것이며, 다른 점복에 비교해서 보다 심각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호의적 태도집단은 노력과 비용이 더 요구되는 신점(神占)이나 직접 방문하는 형태를 좀 더 선호하는 반면, 비호의적 태도집단은 점복 추구 경험이 있더라도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고, 간편하고, 덜 진지한 형태의 타로와 인터넷을 통한 점복추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성별과 종교는 점복 경험,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 점복 행동 등 점복 관련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여성일수록, 비기독교일수록 점복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점복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점복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월평균 가족수입-은 점복 관련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점복 관련 변인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점복 추구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고, 점복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이며, 점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점을 많이 본다는⁷⁾ 국내의 조사나 외국의 선행연구(Tyson, 1982; Barbara et al., 2003; Tobacyk et al., 1983; Dag, 1999)의 결과들과 일관된다. 여성과 남성은 과학과 종교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남성은 좀 더 과학적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Irwin, 1993 재인용; Scheidt, 1973).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신성이 높으며, 암시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Vyse, 1997). 여성이 점복에 대한 암시성이 높다는 것은 그저 상술에 속기 쉽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수용하거나 상상하기 쉽다는 것이다(Vyse, 1997 재인용; Wagner & Ratzeburg, 1987). 더불어 점복 추구는 기존의 남성 성역할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점복 추구는 의존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점복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려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점복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점복의 신비로움을 수용하기 쉬운 것이며, 특별한 갈등 없이 점복 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집단이 불교, 가톨릭, 무교 집단에 비해 보다 점복에 대해 비호의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점복에 대한 기대 또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없는 경우 더 점복 추구를 할 것이며, 특히 기독교일 경우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외국의 보고(Gallup, 1990)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 점복추구 경험이 있는 비율이 53.7%나 되었으며, 점복 추구 경험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7) 데일리안, 2007. 02. 2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점복 추구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다소 의외로 보인다. 과거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무속의 의식체계는 종교의 영향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점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불교집단의 경우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종교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무속적인 색채를 가미했으며, 특히 불교의 경우 사찰 내부에 점복추구를 위한 장소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라고 한다(정승안, 1998). 또한 불교신자는 스님을 통해 점복추구를 하며, 불교의 내세관을 살펴보자면 현세의 삶은 모두 전생의 삶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업(業)사상⁸⁾이다. 이러한 이유가 불교집단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

본 연구 결과, 성별과 종교 변인을 통제한 후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 변인은 3가지 심리적 특성인 외부통제,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변인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직접경험(점복행동)은 외부통제와 특성불안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다음으로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라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외부통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외국 선행연구(Dag, 1999; Claudio Sica, 2002; Tobacyk, 1988)와 일관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점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집단은 중립적,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외부통제 성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부통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조상이나 풍수지리와 같은 외부 대상에게 돌리는 점복의 운명관(김영재, 2004; 장성숙, 2005; 최철민, 2002)과 상당히 유사하다. 외부통제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득당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의

8)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존하기 쉽기 때문에(권순실, 2002) 점복자로부터 주어지는 점복을 더 수용하기 쉽고, 점복자에게 의존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통제소재에 따라 정보 추구에서의 차이가 있다(이선주, 1995; Rotter, 1966). 내부통제자가 외부통제자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한다. 따라서 점복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의 하나로서 간주한다면 오히려 내적통제와 상관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점복 추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에서 점복자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행위(장성숙, 2005)라고 볼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통한 심리적 위안의 효과를 얻는 과정에서는 점복의 진위나 해결방안의 효력 여부는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이 당연하다. 이는 과학의 발달이나 현대 사회의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점복을 성행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라 특성불안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점복에 대해 호의적 태도집단과 중립적 태도집단은 비호의적 태도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특성불안이 높았다. 이는 미신성과 예지력에 대한 믿음이 특성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외국의 선행연구(Wolfradt,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불안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하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지속한다. 점복 추구 역시, 불안으로 생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Malinowski, 1972; Tyson, 1982; Barbara et al, 2003). 즉 불안이 유발하는 내적 동기로 인해 점복 추구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더욱이 특성불안의 경우 꽤 안정적인 경향성(Spielberger, 1972)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점복 추구에 대한 예측변수로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복에 대한 태도집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점복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더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종교를 통제한 후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점복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국내외의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점복을 추구하는 이유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참지 못하는 경향성을 들고 있다(김철민 외, 2004; 오수성, 199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란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다(유성진, 권석만, 2000). 불확실함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유발한다(Vyse, 1997). 불안의 감소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목표를 갖고서 점복 추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점복 추구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를 밝혀내서 모호함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정을 하기 위해 증거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점복 추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점복행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 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박을 하는 상황을 예로 들자면, 도박자는 돈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돈을 딸 것이라는 희망으로 인해 상쇄된다고 한다(Vyse, 1997).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점복행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욕구는 나쁜 점괘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면담 시 나쁜 점괘가 나올까 두려워서 점복추구를 꺼린다는 보고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성별과 종교를 통제한 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의 차이라기보다는 성별과 종교에 따른 차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의 설명력이 상당히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약하자면, 점복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여성일수록, 비기독교일수록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성별과 종교를 통제한 후 호의적인 태도는 외부통제와 특성불안에 따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참작할 만한 점복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점복현상 및 점복추구자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이 연령으로는 20대(50.4%), 성별로는 여성(69.2%)에 크게 치우쳐 있어 일반화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표집 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점복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하고 있는 의존집단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점복에 대한 태도와 점복 추구 유형,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타당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점복에 대한 태도 및 기대 척도의 일부 하위 요인 간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점복’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을 나타내면서도 다양한 독립적인 구성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항 작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항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점복에 대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의 신뢰도 검증을 통해 좀 더 신뢰로운 척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 개개의 차이를 살펴봤을 뿐, 각 심리적 변인들이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각각의 설명량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외부통제는 불안이나 우울과 크게 상관이 있다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본 연구에서 특성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변인의 강한 상관($r=.466, p<.001$)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점복 추구 행동에 대한 설명량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점복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며,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문화적인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특성의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점복이 성행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점복 관련 변인으로 점복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점복 추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복 추구에 대한 동기나 점복 추구 과정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복 추구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상담 및 심리학 분야에서 참작한 만한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점복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가 높은 편이며, 점복추구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추후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점복추구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한 경우가 드물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점복추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점복 관련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심리적 특성-외부통제,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밝혀냄으로 인해 점복추구 실태는 물론 점복추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점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점복추구 유형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므로, 점복추구 유형에 따라 심리학적으로 달리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점복추구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점복에 의존하거나 습관적으로 점복추구를 하는 사람들의 치료적 개입이나 개개인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점복에 대한 역

기능적인 측면들을 다루기 위한 심리학적인 개입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점복과 상담 및 심리치료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내는 기초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자숙 외 (2002), **사회심리학 8판**, 서울, 탐구당, Elliot Aronson저
- 권순실 (2002). **자기개념,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일 (1998), **한국인의 의료행동과 정신과 진료**. 정신건강연구 제17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선호 (2004), **사이비과학과 점성술 비판**, [철학연구] 제89집, 91-110, 대한철학회
- 김영재(2003a), **역리점복을 경험한 내담자의 체험연구 - 역리점복의 상담적 현상에 대한 예비연구**, 인간이해 제 24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4-49
- 김영재 (2003b),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근거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 민병배 (1998), **걱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문제해결 방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83~92
- 김종의 (2001), **소비자행동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준희, 이제영 (2003), **매스미디어의 미신 관련기사에 대한 수용 형태 연구: Q 방법론 적용을 중심으로**, 주관성 연구 제8호, 20~51
- 김철민 (2002),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3(2), 75~89
- 김철민, 이성수 (2004), **운명소비행동의 선행요인**,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5(1), 1-19
- 김혜영 (2007). *Differential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on worry in the autonomic and sociotropic group*.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류운 (2007), **사람들은 왜 이상한 것을 믿는가**, 서울, 바다출판사, Michael Shermer 저
- 백기청, 홍강의 (1987), **스트레스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

- 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1), 75-111
- 서울특별시 (1993), 서울민속대관,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 편저
- 설승원 (200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문제 해결 지향 및 정서 통제감이 걱정
 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 신혜경(1991),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제 귀인양식과 상담효
 율성 평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수성 (1995),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접근, 동양사상과 심리학, 583-594, 성원사
- 유성진, 권석만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특징, 심리과학 9(1), 15-37
- 이부영 (1998), 무속문화 배경의 환자와 정신과 진료. 정신건강연구, 제17집, 한양대
 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이상헌 (2003),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서울, 김영사, Sagan Karl 저
- 이선주 (1995). 특성불안 및 통제소재와 스트레스 대처양식과의 관계 -고교생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범 (2003), 근현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변화, 종교연구 30, 101-154
- 이학식, 안광호, 하영원 (2006), 소비자행동 -마케팅전략적 접근 제4판, 법문사
- 이형초, 최정윤 (1993), 통제소재와 사회적 문제해결과의 관계 -중년여성을 중심으
 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2(2), 152-160
- 장성숙 (2005),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Vol. 17, No. 3, 735-749
- 장장식 (1999), 점복자와 점복의 종류. 한국민속학보 10집, 5-20
- 정승안 (1997), 한국사회에서 점복의 사회적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한덕용, 이장호, 전겸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
 심리학회지:건강, 1(1), 1-14
- 한종호 (2007), 점(占)집이 만원이다. 기독교사상 2007년 4월호, 통권 제580호, 대한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Dorsey
- Barbara J. Zebb, Michael C. Moore (2003), *Superstitiousness and perceived anxiety control as predictor of psychological distress*, *Anxiety Disorders* 17, 115-130
- Borovec, T. D., & Roemer, L. (1995). *Perceived functions of worry amo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ubjects: distraction from more emotionally distressing topic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6, 25-30.
- Claudio Sica, Caterina Novara, & Ezio Sanavio (2002), *Culture and psychopathology: superstition and obsessive-compulsive cognitions and symptoms in a non-clinical Italian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1001-1012
- Dag, I. (1999), *The relationships among paranormal beliefs, locus of control and psychopathology in a Turkish college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723-73
- Davies, M. F. (1997), *Positive test strategies and confirmatory retrieval processes in the evaluation of personality feedbac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74-583
- Dugas, M.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7).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93-606
- Frost, R. O., Krause, M. S., McMahon, M. J., Peppe, J., Evans, M., McPhee, A. E., & Holden, M. (1993). *Compulsivity and superstitiousness. Behaviour and Therapy*. 31, 423-425

- Helena, M. (1994), *Learned Helplessness and Superstitious Behavior as Opposite Effects of Uncontrollable Reinforcement in Humans. Learning and Motivation 25*, 216-232
- Irwin, H. (1993). *Belief in the paranormal: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 87(1), 1-39
- Malinoski, B. (1972), *Magic,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Doubleday
- McGarry, J. J., & Newberry, B. H. (1981). *Beliefs in paranormal and locus of control: A field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725-736
- Meehl, P. E. (1956), *Wanted-A good cookbook. American Psychologist*, 11, 262-272
- Parsons O. A., & Schneider J. M. (1974), *Locus of control in university students from eastern and western societi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2, 456-46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 (No. 609)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 Anxiet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Thalbourne, M. A. (1982), *A Glossary of terms Used in Parapsychology*. London: Heinemann
- Tobacyk, J. J., (1982). *Paranormal belief and trait anxiety. Psychological Reports*, 51, 861-862
- Tobacyk, J. J., Milford, G. (1983). *Belief in paranormal phenomena: Assessment instrument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29-1037
- Tobacyk, J. J., Nagot, E., & Miller, M. (1988). *Paranormal beliefs and locus of*

- control: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241-246*
- Tobacyk, J. J., & Shrader, D. (1991). *Superstition and self-efficacy. Psychological Reports, 68, 1387-1388*
- Tyson, G. A. (1982). *People who consult astrologers: A profi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119-126*
- Vyse, Stuart A. (1997). *Believing in Magic -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radt, U. (1997). *Dissociative Experiences, Trait Anxiety and Paranormal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1), 15-19*
- Wuthnow, R. (1976). *Astrology and marginal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5, 157-168*

ABSTRACT

A Development of Divination Attitude Sca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Take Favorable Attitude towards Divination

Eun-kyo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Divination Attitude Scale to measure quantitatively, analysis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of divin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and compar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ivination attitude. The subjects were 458 adults.

In the 1st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tems were constructed after interviewing 10 adults who consult divination. Factor analysis ended up 31 items of five factors in Divination Attitude Scale which were Divination Intention, Confidence, Negative Affection, Positive Affection, People who consult divination and 15 items of two factors in Divination Expectancy Scale which were Psychological/Affective, Cognitive Change and Resolving. In result, Cronbach alpha of Attitude and Expectancy Scale were obtained, and the correlation of each factors were significant.

In the 2nd stud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Divination Attitude Scale, this study defined the favorable attitude group(n=75) toward divination as the mean +1 standard deviation, the unfavorable attitude

group(n=82) as -1 standard deviation and the neutral attitude group(n=301) as the rest of the peopl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divination, the popularization of divination in Korea was certain a logical conclusion. Because consultee in divination made up the 66.2% of the whole. As a result of one-way ANOVA,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type of divination behavior among group. To exploring divination, a favorable attitude group was higher frequency and expense than other groups.

The related variables of divination-behavior, attitude, and expectancy- were correlated with gender and religion but unrelated to the other demographic variables. Women took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s divination than men, and christian took the most unfavorable attitude than other religion and nonreligion.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nd religion, the related variables of divin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locus of control, trait anxiety, and lack of tolerance to uncertainty. As a result of one-way ANOVA,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group. Favorable group appeared the more external locus of control, the greater trait anxiety, and the greater lack of tolerance to uncertainty. As a result of ANCOVA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and religion,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locus of control and trait anxiety among group.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n't found in lack of tolerance to uncertainty among group. Finally, I discussed som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words : Divination, Divination Attitude Scale, Demographic Variables, Locus of Control, Trait Anxie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부 록

1.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2.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3. 점복 추구 경험에 관한 질문지
4. 인구통계학적 변인
5.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Scale) 척도
6. 특성불안(Trait Anxiety Inventory) 척도
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척도

<부록 1> 점복에 대한 태도 척도

다음은 점(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점(占)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1	2	3	4
2. 점복자(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말장난 내지 속임수다.	1	2	3	4
3.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점복자(점쟁이)는 알아맞힐 수 있다.	1	2	3	4
4. 점(占)이 맞는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1	2	3	4
5. 점(占)을 통해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6. 비합리적인 사람이 점(占)을 본다.	1	2	3	4
7. 운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1	2	3	4
8. 점(占)은 죄다 상술이다.	1	2	3	4
9. 사주와 같은 점(占)은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있다.	1	2	3	4
10. 어수룩한 사람이 점을 믿는다.	1	2	3	4
11. 잘 알아맞히는 용한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1	2	3	4
12. 점(占)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본다.	1	2	3	4
13.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점을 본다.	1	2	3	4

다음은 귀하가 **점(占)보는 행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점을 볼 의사가 있다.	1	2	3	4
2. 점복자(점쟁이)가 알려주는 대로 따를 것이다.	1	2	3	4
3. 점복자(점쟁이)가 권한다면 부적을 사겠다.	1	2	3	4
4.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점복자(점쟁이)의 조언을 구하겠다.	1	2	3	4
5. 유명한 점복자(점쟁이) 또는 점집을 수소문하기도 한다.	1	2	3	4
6. 혼사 등 중요한 일이 있다면 비용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점(占)을 보러가겠다.	1	2	3	4
7. 점복자(점쟁이)의 실력이 의심된다면 다른 점복자(점쟁이)에게 가보겠다.	1	2	3	4
8. 아는 점집 또는 점복자(점쟁이)가 있다.	1	2	3	4

다음은 **점(占) 또는 점(占)보는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점(占)보는 것은 재미있다.	1	2	3	4
2. 점(占)보는 것은 해가 된다.	1	2	3	4
3. 점(占)의 신비로움이 매력적이다.	1	2	3	4
4. 점(占)보는 것이 좋다.	1	2	3	4
5. 점(占)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6. 점(占)보는 것은 건전하다.	1	2	3	4
7. 점(占)보는 것은 어리석다.	1	2	3	4
8. 점(占)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2	3	4
9. 점(占)보는 것은 창피하다.	1	2	3	4
10. 점(占)보는 것은 죄책감이 든다.	1	2	3	4

<부록 2> 점복에 대한 기대 척도

“만약 당신이 점(占)을 본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주의 깊게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2.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3. 미리 조심하고 삼가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1	2	3	4
4. 객관적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1	2	3	4
5.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1	2	3	4
6. 나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7. 인정받고, 대우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8. 나의 고통을 알아줄 것이다.	1	2	3	4
9.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1	2	3	4
10.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1	2	3	4
11. 속이 후련해질 것이다.	1	2	3	4
12. 자신감이 회복될 것이다.	1	2	3	4
13.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14.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	1	2	3	4
15. 희망이 생길 것이다.	1	2	3	4

<부록 3> 점복 추구 경험에 관한 질문지

- | | | |
|--|----------------------------|------------------------------|
| 1. 부모나 친지 등 주변인을 통해 점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2. 직접 점(사주, 신점, 타로, 손금 등)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귀하께서 '직접 점(사주, 신점, 타로 등)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다면, 다음 문항에도 계속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얼마나 자주 점(占)을 보십니까? ()
- (1) 한 번 (2) 5년에 한 번 이하 (3) 2~4년에 한 번 정도
(4) 1년에 한 번 정도 (5) 2~6개월에 한 번 정도 (6) 한 달에 한 번 이상

4. 귀하는 어떤 종류의 점(占)을 보셨습니까?(복수응답가능)
- 사주 타로 손금 관상 신점
 궁합 별점 토정비결 기타 _____

5. 어떤 종류의 점(占)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 (1) 사주 (2) 타로 (3) 손금 (4) 관상 (5) 신점
(6) 궁합 (7) 별점 (8) 토정비결 (9) 기타 _____

6.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점(占)을 보셨습니까?(복수응답가능)
- 대중매체(잡지 등) 인터넷 전화 서비스 사주카페
 점집(철학관) 방문 노점형(길거리나 지하철 등)
 지인 또는 종교인 기타 _____

7. 어떤 방법으로 점(占)을 보는 것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 (1) 대중매체(잡지 등) (2) 인터넷 (3) 전화 서비스 (4) 사주카페
(5) 점집(철학관) 방문 (6) 노점형(길거리나 지하철 등)
(7) 지인 또는 종교인 (8) 기타 _____

8. 점(占)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까?(복수응답가능)
- 재물(금전) 및 사업 직업(취업) 및 이직 건강문제
 정신건강(우울, 불안) 시험 및 진학문제 이성 및 결혼(궁합)
 가족(자녀/부부)문제 이사 등 택일 기타 _____
 작명

9. 귀하는 점(占)을 보는데 1회 평균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

- (1) 없음 (2) 만원 미만 (3) 1~3만원
(4) 4~10만원 (5) 11~20만원 (6) 21만원 이상

10. 귀하는 어떤 계기로 점(占)을 보게 되었습니까? 귀하가 점을 보게 된 계기를 잘 나타내주는 □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복수응답가능)

- 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② 선택 또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③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④ 논리나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역경을 겪었을 때
 ⑤ 인생 전환기(취업/결혼)에서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⑥ 실패를 피하고 싶어서
 ⑦ 연초(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
 ⑧ 답답하기 때문에
 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⑩ 우울해서
 ⑪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서
 ⑫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등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서
 ⑬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⑭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⑮ 가족의 대표자로서
 ⑯ 재미나 오락으로
 ⑰ 테이트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⑱ 궁금해서 또는 호기심으로
 ⑲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서
 ⑳ 잘 맞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11. 귀하는 앞으로 다시 점(占)을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

<부록 4> 인구통계학적 변인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문항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
(1) 남 (2) 여

3. 귀하의 결혼여부는? ()
(1) 기혼 (2) 미혼

4. 귀하의 최종학력은? ()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졸 (5)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현재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기독교 (2) 불교 (3) 가톨릭 (4) 무교 (5) 기타 _____

6. 귀하의 가족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400만원 (5) 400~500만원 (6) 500만원 이상

<부록 5>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Scale) 척도

다음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깝다고 느껴지는 의견에 표 해주세요.

1. 1)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너무 야단을 치기 때문이다.
 2)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은 부모가 과잉보호하기 때문이다.

2. 1)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2) 노력하지 않고 운수만 믿었을 때에는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다.

3. 1) 세상은 착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2) 착실히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4. 1) 자식은 가르치기 나쁨이다.
 2)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될 아이는 안 된다.

5. 1) 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이다.
 2) 사람의 본성은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

6. 1) 계획만 잘 짜면 그 일은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
 2)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운이 나빠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

7. 1) 하려고 하면 부정부패는 없앨 수 있다.
 2)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는 일반인이 손을 쓰기란 대단히 힘들다.

8. 1)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2)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해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이다.

9. 1)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2) 사람은 사귀어보면 다 좋다.

10. 1)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2)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집권자의 방침에 달려있다.

11. 1) 내가 노력해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2) 연분이 닿아야 좋은 배필을 만난다.
-
12. 1) 자기의 잘못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2) 잘못은 했지만 덮어두는 것이 좋을 때가 더러 있다.
-
13. 1) 잘 살고 못 살고는 팔자소관이다.
 2) 얼마나 잘 사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달려있다.
-
14. 1) 국민도 나라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일반 국민은 나라 일에 왈가왈부해봤자 소용없다.
-
15. 1) 잘 자라지 않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2)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
16. 1) 사회의 부정부패는 대개 정치인들에게 잘못이 있어 그렇다.
 2) 사회의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그 책임이 있다.
-
17. 1)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2) 정치 및 사회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18. 1) 사람이란 결국 자기의 값어치에 따라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2) 불행한 일이긴 하나 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다.
-
19. 1) 돈벌이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된다.
 2) 돈벌이는 하면 할수록 좋다.
-
20. 1)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다.
 2)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데 달렸다.
-
21. 1) 유능한 사람이라도 운이 나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2) 유능하면서도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록 6> 특성불안(Trait Anxiety Inventory) 척도

다음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흔히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쾌하다.	1	2	3	4
2. 나는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한다.	1	2	3	4
3. 나는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4. 나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나는 낙오자처럼 느낀다.	1	2	3	4
6. 나는 느긋하다.	1	2	3	4
7. 나는 평온하고 침착하다.	1	2	3	4
8. 나는 어려움이 많아서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9.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1	2	3	4
10. 나는 행복하다.	1	2	3	4
11. 나는 여러 생각들로 마음이 혼란스럽다.	1	2	3	4
12.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13. 나는 안전하다.	1	2	3	4
14. 나는 어렵지 않게 일을 결정한다.	1	2	3	4
15. 나는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1	2	3	4
16. 나는 만족스럽다.	1	2	3	4
17. 나는 사소한 생각으로 마음을 쓰고 괴로워한다.	1	2	3	4
18. 나는 한 번 낙담하면 헤어내기 힘들다.	1	2	3	4
19. 나는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1	2	3	4
20. 나는 당면한 문제들로 긴장되고 짜증스럽다.	1	2	3	4

〈부록 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 척도

다음은 평소 귀하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가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칸에 ✓표를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나는 무슨 일이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1	2	3	4
2.당황하지 않으려면, 항상 앞일을 생각해야 한다.	1	2	3	4
3.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1	2	3	4
4.당황하는 경우에 참아낼 수 없다.	1	2	3	4
5.예측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한다.	1	2	3	4
6.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싶다.	1	2	3	4
7.최고의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소한 일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1	2	3	4
8.불확실한 미래는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9.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좌절한다.	1	2	3	4
10.나는 모든 모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	1	2	3	4
11.불확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12.불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13.모호한 상황에 있게 되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	1	2	3	4
14.불확실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1	2	3	4

15.모호하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1	2	3	4
16.불확실하다는 것은 삶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1	2	3	4
17.불확실하다는 것은 내게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18.불확실하다는 것은 나를 나약하고 불행하게 하며 심지어 슬픔까지도 느끼게 한다.	1	2	3	4
19.다른 사람이 미래에 대해 확신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0.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는 것 같다.	1	2	3	4
21.삶에서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1	2	3	4
22.불확실한 삶은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	1	2	3	4
23.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24.불확실하다는 것은 나를 불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1	2	3	4
25.명확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잠들기 어렵다.	1	2	3	4
26.행동에 옮겨야 할 시점에 분명치 않은 일이 있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27.모호하면 확고한 견해를 가질 수 없다.	1	2	3	4